

## 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 북핵(미사일) 실험

고봉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동북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립구도가 잔존하고 있어서 한 나라의 일방적 조치가 다른 나라의 부정적 대응을 초래하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할 위험성이 아주 큰 지역임.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 외에도 동북아에서는 '조용한' 군비 경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 역시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지 않아야 함.

이 글은 동북아의 최근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증강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그러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대해 토론함.

동북아에서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군사력 평가 협의체를 만들고,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여 가능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들어가는 말
- 2. 동북아의 군비 현황
- 3.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 가. 미국의 세계 전략, 정책 기조, 군사전략
  - 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
  - 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 라. 한국의 군사력 강화
- 4.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영향
- 5. 어떻게 군비경쟁을 회피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 북한이 지난 5월 25일에 실시한 제2차 핵실험은 4월 5일에 실시한 장거리 로켓추진체 발사실험과 아울러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과 관련한 핵심 현안임.
-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립구도가 잔존하고 있어서 한 나라의 일방적 조치가 다른 나라의 부정적 대응을 초래하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할 위험성이 아주 큰 지역임.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 외에도 동북아에서는 '조용한' 군비경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 역시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지 않아야 함.
- 이 글에서는 동북아의 기존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증강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러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동북아의 군비 현황

- 군사력 경쟁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군사비 지출임. 물론 투여되는 군사비 자체를 군사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한 국가의 군사비 규모는 최소한 그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에 어떠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어주는 중요한 지표임. 특히 군사비의 지출은 외부의 요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전체적 조망은 필수적임.
- SIPRI 2009 연보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비는 1999-2008년 10년간 56%가 증가했음.

- 이는 냉전 직후의 탈군사화 추세에서 2000년대 들어 다시 군비의 증가로 변화한 국제적 추이와 무관한 것은 아님.
- 하지만, 동 기간 세계의 평균 군비 증가는 45%에 머물렀고, 유럽 지역의 국방비는 14% 증가하고, 아프리카의 경우도 40% 증가에 그쳤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지역의 군비 증강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흐름 외에 지역적 범위를 동북아로 국한시켜 본다면, 동북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막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정학적 동북아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시켜 북한을 제외한 기존 6자회담 참가국의 군사비 지출을 고려하면, 2008년에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군사비의 58.5%를 지출한 셈임.
  - 2008년 전 세계 군사비 총 지출액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조 2천억\$임.
  - 아래의 표에서처럼 이러한 군사비 규모가 동북아에서 계속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이 잠재적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1] 2000년대 동북아시아 국가 국방비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US	3,421.7	3,449.3	3,873	4,408.1	4,804.5	5,033.5	5,111.9	5,476.9	5485.3
China	237.8	280.1	330.6	365.5	402.8	443.2	518.6	582.7	636.4
Japan	438	442.8	447.3	448.1	444.7	441.7	436.7	435.6	427.5
Russia	191.4	212.5	236	251.1	261.2	284.9	311.8	353.7	382.4
ROK	166.5	171.3	176.1	182	190	206	205.3	226.2	2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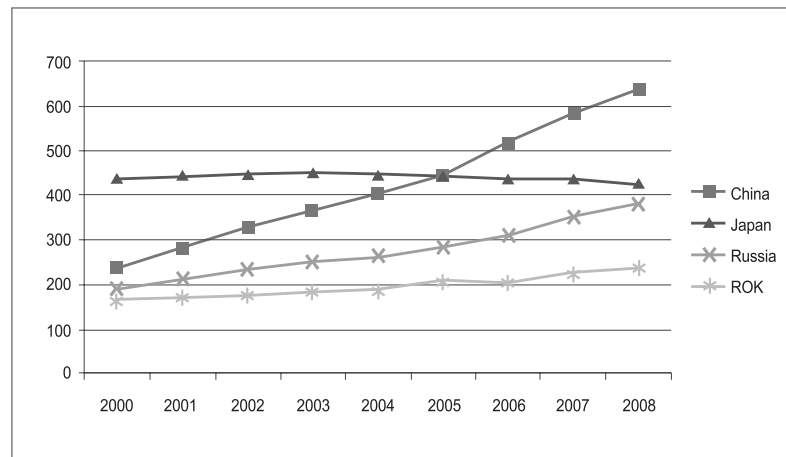
단위: US\$10억 (2005년 불변가치)  
출처: SIPRI Yearbook 2009

- <표1>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0-2008년 기간에 미국 국방비는 60%, 중국 국방비는 168%, 러시아는 100%, 한국은 43% 증가했음.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는 점진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모두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에 포함

- 일본의 국방비는 동 기간에 거의 변동하지 않았는데, 이는 GDP의 1% 규모로 국방비를 제한해온 일본의 관행을 고려할 때 2000년대의 저성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미국이 군사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그 규모도 압도적임을 파악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동북아 국가 중 국방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러시아의 경우, 비록 2000년대 초반보다 배 이상 국방비를 증가시켰지만, 이는 냉전 종식 당시(90년 약 3천 5백억\$, 1999년 불변가치 기준)의 10% 규모에 불과하여 이를 실질적인 군사력의 증강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측면이 존재함.
- 결론적으로 미국의 주도 하에 동북아에는 점진적 군비증강 추세가 존재함. 또한 위의 다섯 나라가 모두 세계 국방비 상위 15개국에 포함됨.
- 이러한 움직임은 <표1>을 그림으로 바꾸어 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남.

[그림 1] 2000년대 동북아시아 국가 군비 현황: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단위: US\$10



-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연 동북아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군비경쟁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즉 동북아의 군비가 2000년대에 들어서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각국의 GDP 규모가 확대된 것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이지 그간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각국이 새롭게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함.
-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위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줌.
-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미국은 3-4%, 중국은 1.8-2.1%, 일본은 1% 정도, 한국은 2.4-2.6%, 러시아는 3.4-4.3% 정도 수준에서 변화하였음.
- 하지만, 위의 그림처럼 2000년대 들어서 동북아의 국방비 규모의 증가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냉전 말기 미국과 소련의 국방비 합산 규모를 넘어서는 국방비가 현재 동북아 지역 국가에 의해서 지출되는 결과로 이어짐.
- 국방비 규모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군사력의 전반적 현대화와 전략·전술적 공격 능력의 개선을 의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3.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 현재 전 세계의 군비 증강은 미국에 의해 주도.
- 2000년대 부시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군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실질 가치 기준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룸.
- 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이들 국가의 국방비 증가는  
 군사력의 현대화와  
 공격 능력의 개선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찰 필요

미국은 미래적 안보위협 및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 계속

-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1.5%를 차지.
-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철군계획을 공고히 하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안정시키며 러시아와도 새로운 전략무기감축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약속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근본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다양한 안보확보 수단을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 추세와 전 방위적 안보의 강화 모색이라는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하여 주변국들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 미국의 세계 전략, 정책 기조, 군사전략

-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자국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전략적 고려에는 큰 변함이 없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세 조정을 거치고 있음.
  -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미래의 안보위협을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21세기형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플랜은 이를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조함.
  - 첫째,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 최근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수전 병력, 민사작전 병력, 정보전 병력 등을 확대하고 타국과의 공동 작전 수행을 위한 병력의 확보와 훈련에 집중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육군 6만 5천명, 해병대 2만 7천명을 증원할 계획을 천명.
  - 둘째, 물적 자원 부문에서는 무기 체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해상과 공중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격차를 유지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실용적으로 개발하며, 우주 및 가상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중점을 둠.

-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미국에게 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금년 한 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내년에도 적자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음),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안 규모는 실질 가치 기준으로 금년보다 2% 증가한 것이라는 점. 이는 미국이 군사 부문에서 전 세계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
- 최근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2010 QDR은 향후 미국 군사전략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우선 국방예산 감축의 압박 속에서 이라크 전쟁의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강조 때문에 국방예산이 전폭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함.
  - 현재 상륙 및 지상 작전 지원용 구축함(Zumwalt), 육군의 FCS, 대형 위성 등의 프로그램은 취소되고 있으나, 향후의 전략적 초점이 두 개의 준 전쟁(quasi-war)의 성공적 수행에서 '가능한 모든 전쟁(every possible war)'에서의 승리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개념의 도입을 통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북한, 파키스탄에서의 비정규전 역량 검토
    - 중국, 대만, 러시아, 발트 해 국가, 이란 등 타 국가와의 주요 갈등
    - 민군협력 및 해외작전 검토
    - 미군의 해외주둔 재검토 등
  - 결론적으로 미국에 포괄적 스펙트럼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능력을 창조적으로 결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이미 자국의 GPR(Global Posture Review) 즉 "해외 방

2010 QDR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은  
포괄적 스펙트럼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능력  
요구

역설적으로 미러 간  
전략무기 감축협상은  
일본과 한국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

위력 배치 재검토”를 통해 해외 군사력의 중점을 “위협기반”의 지역 동맹으로부터 “능력기반”의 지구 동맹의 유지로 정리한 바 있음.

-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군사력을 신속히 배치 전개할 수 있는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비록 미국이 자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개발과 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MD와 연계할 수 있는 자산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임.
- 미국이 확보하는 전략적 유용성은 결과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 및 현대화로 이어질 것임.

○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상을 도모하고 있음.

- 역설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에 최소의 실질적 역지력만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전략무기를 감축시킨다면 이는 일본과 한국에게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음.
- 실제로 미국이 새롭게 준비하는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는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1,000개 이하로 줄이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 심리가 다시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중국의 핵전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일본과 한국에 군사력 증강의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

○ 일본은 예산 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여 왔음.

- 특히 2004년 방위계획대강(National Defense Progra Guidelines) 이래 일본은 방위력 증강은 물론 잠재적인 공격능력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최근 일본은 육상자위대를 기동성의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재편성하고 있음.
- 항공자위대는 지역적, 지구적 작전 범위를 신장시키고 있음.
- 해상자위대는 수륙양용 기술과 항공모함 기술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을 상정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큼.

○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일본은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계속 도입하고 있음.

- 육상자위대는 국제임무 투입용 수송용 헬기인 CH-47JA를 도입 운용하고 있음.
- 항공자위대에 200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KC-767 공중급유기는 일본 본토방어 이외의 다양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음. 이미 70대 이상이 배치된 F-2 지원전투기는 공중전을 주로 하는 한국군의 주력기인 F-15와는 달리 지상목표물과 함대를 공격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F-2 지원전투기에, 이라크 전에서 명성을 떨쳤던, 재래식 폭탄에 정밀유도장치를 부착한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합동직격탄)을 탑재하면 북한의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음.
- 이외에도 일본은 현재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 최신에 스텔스전투기 F-22 구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육상, 항공, 해상  
자위대는 각각 전력의  
역의 투자력 확보 계획을  
추진 중

중국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및 군사혁신  
동시에 추진

- 아울러 해상 자위대는 2015년까지 4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다양한 공격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항공모함으로 여겨지는 수송선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지스 미사일방어체제와 PAC-3를 결합한 다층 미사일방어체제를 이미 실전 배치하였음.
- 이 중에서도 일본의 이지스 미사일방어체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요격무기로 포함하고 있음.
- 이 SM-3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비행 중일 때 지상 200km 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일본은 이러한 SM-3 미사일을 2011년까지 총 4척의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할 계획임.

○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미일 동맹의 강화로 동북아지역에 자국에 대한 포위망이 건설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큼.

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중국은 우선 2010년까지는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선택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차세대 전력을 도입함으로써 인민해방군(PLA)의 전투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향후 15년 내에 정보화에 기반을 둔 군사혁신(RMA)을 통해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력으로 도약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경로의 접점에서 중국은 자국의 미사일 능력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자국 미사일의

생존가능성과 공격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임.

○ 중국의 최근 미사일 능력 강화는 주목이 필요한 부분임.

- 중국은 기존의 DF-5 대륙간탄도미사일 외에 그 개량형인 DF-5A, 이동식인 DF-31, DF-31A를 조만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임.
- 중국은 아울러 DF-5에 탑재될 각개유도 다탄두(MIRV)를 개발했음을 밝힌 바 있음. 중국은 여기에 이동식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하여 지역 수준에서의 핵 억지력을 증강시킬 계획임.
- 다른 한편 중국은 최근에 사정거리 2,000 km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배치했고, Su-27 및 Su-30MK 등의 전폭기, 자체 개발한 J-10, FB-7A 전투기, 신형 J-X 스텔스 전투기, KJ-2000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대공 방어력과 공격력을 강화했음.
- 아울러 2007년 1월의 ASAT 테스트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용 위성을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음.

○ 이 외에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전력 증강에 대응하는 다양한 무기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052C Luyang II 및 051C Luzhou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054A Jiangkai 소형구축함을 배치하여 미국과 일본이 배치한 이지스방어망과 유사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은 항공모함의 건조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운용 중인 핵잠수함에 조만간 사정거리 8,000km의 장거리 탄도미사일(SLBM) JL-2를 실전 배치할 예정임.

○ 종합하자면, 육상에서의 이동식 미사일의 확충, 해상배치 억지력과 각개유도 다탄두의 개발 등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평가됨.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역의 군사력 투사능력을  
확보할 것이지만, 현재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전력구사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고 강제력을 보유하길 원함

-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현재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A2/AD, anti-access/area-denial).
- 이런 능력의 확충은 미국의 군사통신 네트워크 파괴 또는 교란 능력, 미국의 해외기지에 대한 공격력 구축 등으로 강화될 것임.
- 또한 중국은 초수평선 레이더, 무인비행기, 정찰위성의 강화를 통해 미국 해군력의 효율적 작전을 저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 중국은 최소한 동아시아에서의 강제력(coercion) 보유를 원함.

라. 한국의 군사력 강화

- 한국의 경우는 대 북한 대응 등을 위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임.
-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구축 노력은 최근의 일이 아님. 과거에는 이에 대한 군사력 강화라는 맞대응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속에서 한국은 주로 군사적 조치 이외의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한국은 군사력의 증강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고 있음.
- 한국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억지력 외에, 최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표적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무력화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 정책적으로 이미 노무현정부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국형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한국은 적극적 방어의 측면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과 함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의 본격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예방차원에서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기 위한 공격작전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음.
- 한국은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무기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07년 5월에 1,000km 밖의 비행물체를 동시에 900개까지 탐지 및 추적하고 SM-2로 동시에 17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인 세종대왕함(KDX-III)을 진수시켰고, 동급 구축함을 2012년까지 2척을 더 배치할 계획임.
- 아울러 미니 이지스함인 KDX-IIA를 도입하여 미래 해군 기동부대 주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이미 국산 스텔스전투기의 개발 및 스텔스 공대지미사일 확보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최근에 유사시 북한 핵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최대사거리가 400km인 재증(JASSM: 합동 원거리 공대지미사일)급 미사일은 한국의 최신 전투기인 F-15K에 장착되어 북한 영공으로 깊이 진입하지 않고도 북한 내의 지상 또는 지하 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미사일은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백 기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2020년까지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한국군이 보유하게 됨.
- 한국군은 또한 사거리 500km 이상인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과 함대지 순항미사일 천룡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여 이 중 현무-3은 올해 초부터 실전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방어 및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동북아에서의 '조용한'  
군비경쟁은 북한의  
도발과 독립적으로 이미  
진행 중임

- 아울러 한국은 현재 사거리 300km로 제한되어 있는 지대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요인을 정리해보면 이지스급 구축함의 도입을 통한 해군력의 증강, 대 북한 대응의 다각화,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을 둔 작전 구사능력의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음.

#### 4.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영향

- 이상에서 살펴 본 러시아를 제외한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구체적으로는 금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이전에 결정되어 추진되어온 것들임. 이를 통해 현재 동북아 군비 경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역동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첫째, 동북아에는 일종의 군비경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과거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 간에 있었던 것처럼 폭발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동북아 각국은 조용한 군비경쟁(silent arms race)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평가해야 함.
  - 이 글에서 살펴본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각자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필요에 의해 군사력의 현대화와 무기의 선택적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한 필요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미국, 중국, 북한 등 가상 적국의 전력 현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대두되고 있음.
  - 둘째,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전략적 라이벌의 등장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틀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의 핵심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음.
  -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이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역 내의 일본과 한국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동맹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피동적인 입장에서라도 역지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는 군비경쟁이 완화될 전망을 흐리게 함.

-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이러한 조용한 군비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미국의 세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미국은 최근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음. 사실상 북한의 실험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주는 위협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임.
  - 다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군축·비확산이라는 큰 틀의 추진에 북핵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 프로그램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의 형제국인 중국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도 없을 것임. 다만 북한의 실험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공격적인 대응을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동북아의 지역 안보에 새로운 불안 요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국의 선택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임.
  -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일본과 한국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일본과 한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음.
  - 이들은 비록 액체연료를 사용하지만, 지하에 저장되었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발사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는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더구나 이들은 각각 10여 곳 이상의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일본과 한국 내의 다양한 타격 목표를 겨냥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실험은 일본과 한국의 안보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음.
  - 더구나 미국이 보복의 "위협"에 기반을 둔 군사력보다는 신속대

동북아 군비경쟁의 핵심  
에는 당분간 지역 내의  
역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음

지역 내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안정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어느 수준까지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응군 위주로 해외 전력을 재편하는 추세여서 과거보다 미국이 제 공할 억지력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과 한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5. 어떻게 군비경쟁을 회피할 것인가?

- 안보를 위한 국방력의 강화는 현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절대적 명제 중의 하나임. 하지만 Jervis가 얘기한 안보딜레마는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군사력의 증강이 오히려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대응이 다시 중국의 맞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실질적 위협을 느낄 일본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어느 수준까지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사실상 미국과 소련 간에 보장되었던 투명성(transparency)과 비슷한 수준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 이러한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예정된 군사력 현대화 계획은 북한의 돌출적 행위에 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군비 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화와 병행되어야 할 점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임.

- 미국으로부터의 방위비 또는 역할 분담의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지만,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군사력의 수준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의 안보딜레마의 작동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군사력 평가 협의체를 만들고,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여 가능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투명성 제고와 함께  
 지역내 군사력 평가  
 협의체 추진 필요

### JPI 정책포럼 현황

- 이병도 『태국의 국내정치 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2009년 5월)
- 이재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2009년 6월)
- Belashov Volodymyr 『우크라이나 비핵화 모델』 (2009년 7월)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을 계기로』 (2009년 8월)
- 박영준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2009년 9월)
- 최원기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한국에의 함의』 (2009년 9월)
- 이성우 『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2009년 10월)
- 조 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2009년 10월)
- 황지환 『북한의 최근 대내외 인식과 정책방향』 (2009년 10월)
- 조양현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 및 전망』 (2009년 10월)
- 주장환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 (2009년 11월)
- 이춘근 『우주 개발: 쟁점과 전망』 (2009년 11월)
- 최장근 『일본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2009년 12월)
- 조운영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2009년 12월)